



23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61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과 발표회에서 수상자들이 김여송 광주일보 사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예술 꿈나무 솜씨자랑...프로 못지 않네

61회 호남예술제 발표회·시상식
피아노·국악·창작발레 등
전시회·선배 축하공연도

꼬마 피아니스트 남여울(목포 영산초 2년)양이 무대에 올랐다. 앙증맞은 모습으로 모차르트의 곡을 연주하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꼭두각시 춤을 모티브로 한 창작 발레를 선보인 차혜주(오치초 4년)양 역시 박수 갈채를 받았다. 송원초등학교 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도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61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와 시상식이 23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 특별무대에서 열렸다.

한여름 뜨거운 날씨 속이었지만 예술 꿈나무들은 지금껏 갖고 있던 무대를 선보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피아노 중등부 최고상 수상자인 정현우(영산중 3년) 양, 피아노 수상자인 양준혁(건국초 4년)군을 비롯



호남예술제 최고상 발표회에서 성악 부문 최고 수상자가 공연하고 있다.

해 플루트, 국악, 창작발레 등 다양한 장르가 공연됐다.

시상식에서는 초등부 최고상 13명, 중등부 최고상 6명, 고등부 최고상 8명, 합창 최고상 등에게 상패와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 종합최고상을 수상한 광주송원초, 동아여중, 광주예술고등학교와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살레시오고, 송광중, 전남에



제61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시상식과 발표회에서 축하 공연을 열고 있는 김철웅 교수 등 4인의 남성 성악가.

고에 대한 시상이 열렸으며 또 새작 그리기 축제에서 종합최고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세운그림유치원과 애플 B유치원도 수상했다.

선배 예술인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졌다. 피아노, 해금, 피리, 보컬로 구성된 '보배와 아이들'은 '진도 아리랑'을 비롯, 다양한 국악 곡으로 무대를 빛냈으며 목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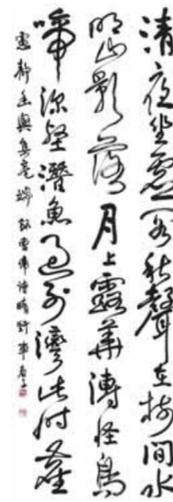
현악 4중주단은 바흐의 'G선상의 아리아' 등을 선보였다. 또 목포대 김철웅 교수 등 남성 성악가 4명의 축하 공연도 마련됐다.

한편 5·18 광장에서는 김도형(태봉초 2년)군의 '동물', 류시연(광주송원초 3년)양의 '여행' 등 미술 부문 최고상 수상 작품 전시회도 함께 열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사의 자유·한시의 여유 담고파”

광양 차춘자씨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대상



“얼떨떨 하네요. 저한테 너무 과분한 상이에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삼으려고 해요.”

지난 20일 만난 차춘자(여·58)씨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녀는 지난 6월24일 발표한 제35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상금 1000만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848점이 응모해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9점 등 총 632점이 입선했다.

차씨는 조선시대 매계 조위(1454~1503)가 쓴 한시 ‘영흥객관’을 행초체(행서+초서)로 쓴 작품을 출품했다. “산 그림자 맑은 물에 떨어지고 달 오르면 이슬꽃 등 글다’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 시에서 느껴지는 여유로움이 제가 원하는 삶과 닮았어요. 또 자유롭게 획을 구현할 수 있는 행서를 평소 좋아했어요. 이번 대회에는 행서와 초서와 섞어서 쓴 ‘영흥객관’을 출품했는데 결과가 좋네요.”

광양 출신인 그녀는 약 25년 전 두 아들에게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 함께 서예를 시작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차 서예 매력에 빠져들었고 1999년부터는 학정 이돈홍 선생 밑에서 실력을 쌓았다. 학정 선생은 차씨가 써는 100장이 넘는 연습작을 살펴보고 조언하며 이번 대회를 도왔다.

“학정 선생님을 만난 게 큰 행운이었어요. 덕분에 2009년과 지난해에 입선을 한데 이어 올해 대상까지 받았어요. 집에서 작품을 써오면 학정 선생님이 어떤게 잘 못됐고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일일이 짚어주셨어요.”

지역에서는 오랜만에 한국미술대전 대상이 나왔고 특히 서예부문이라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학정 선생은 “이번 결과가 차씨 개인적인 영예를 넘어 서예 활성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차씨는 “대상을 받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며 “계속 정진해 더 좋은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시상식은 8월2일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갤러리 808에서 열리며 8월10일까지 입선작 전시가 진행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최석현 광주영상위원회 이사장 취임



사)광주영상위원회 최석현(성형외과 원장)이사장 취임식이 지난 22일 홀리데이 인 광주 호텔에서 열렸다.

최 이사장은 전남대 의대 성형외과 과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현대미술 광주아트비전 조직위원장, 사)현대미술 예뻐고 이사장을 맡는 등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석현이사장은 “그동안 광주영상위원회 지원으로 매년 20여편의 작품이 촬영됐다”며 “앞으로 매년 50여편의 영화·TV 등 영상물 제작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영상위원회는 광주에서 촬영되는 영화, TV 등 영상물제작과 로케이션 촬영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2003년 3월 20일 설립된 단체다. 올 6월에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를 유치했으며 7월 하반기부터는 연인원 3000여명이 동원되는 송강호 주연의 ‘택시 드라이버’ 촬영이 진행된다.

한편 광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차두옥 동신대학교 교수,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에 조일성 전 영화협회장, 이사진으로 김 정, 최을석, 이창호, 장현필씨 등이 활동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성부 시인 삶·문학세계 조명

광주대 백애송씨 연구서 출간

광주 출신 시인 이성부(1942~2013)의 삶과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책이 출간됐다. 광주대학교 강사인 백애송 씨가 펴낸 ‘이성부 시에 나타난 공간 인식’(푸른사상)은 시인의 시세계를 조망한 연구서다.

백 씨는 이성부의 시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만큼 인간의 삶과 밀착된 기본적인 터전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기제다. 저자는 원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인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들여다본다. 그 결과 이성부의 시의 공간은 순환과 공동체에 속한다고 파악한다. 또한 시인의 고향인 광주, 어머니, 무등산, 넓은 들, 집, 전라도 등의 공간은 그의 실제 경험과 함께하

면서 ‘희망’을 내포한다고 본다. 책은 원전이 다른 작품에 대한 사실 확인과 시인의 연보가 구체적으로 기술돼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백 씨는 “이성부 시에서 공간은 그의 생

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시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주제”라면서 “이성부 시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

◆일시 | 2016년 7월 27일 오후6시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주관 | 광주 서구문화원(기획:김정희 시인)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로연 1층)

제2회 화순~광주 동구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

2016년 8월 15일(월)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가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광주일보사·마라톤세상**
 주관 **화순군육상협회·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